

毛澤東思想과 마르크스主義의 中國的 受容

鄭 鍾 旭

(서울大學校 社會大 教授)

1. 序 論

2. 黨과 大衆의 關係
3. 農民과 勞動者의 關係

례>.....

4. 歷史發展의 段階
5. 結 語

1. 序 論

마르크스主義와 毛澤東思想의 비교연구에 있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마르크스主義와 毛澤東思想을 어떻게 定義하느냐는 方法論的 문제이다.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主義라고 부르는 一聯의 理論體系는 그것이 갖는 科學的 性格과 論理的 一貫性에도 불구하고 주장의 내용이 時機에 따라 다소의 差異點을 露呈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主義에서 理論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上部構造와 下部構造와의 關係에 있어서 1850年代 以前의 마르크스가 상당한 融通性을 부여하여 上部構造가 반드시 下部構造에 의해 完全決定되는 것이 아니라고 示唆했음에 비해 1850年代 以後의 마르크스에서는 그러한 融通성이 사라지고 經濟決定論의 입장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現代的 의미에서의 마르크스主義는 마르크스나 앵겔스의 著書를 통해 나타나는 古典的 의미에서의 마르크스主義를 넘어서서 레닌이나 스탈린이 거기에 삽을 붙이고 補完하고 나아가서 部分的 修正을 加한 것까지를 包含하는 넓은 의미에서 理論體系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의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와 넓은 의미에서의 現代的 마르크스主義 사이에서 그 어느 것을 泰하느냐에 따라 문제를 다루는 視角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

毛澤東思想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된다. 毛는 生前에 적어도 337편의 資料를 남겼다. 이 중 상당수는 毛가 직접 著述한 論文들이지만 적지 않는 수가 毛의 演說文이거나 또는 毛의 이름으로 발표된 政策들이다. 예를 들면

文化革命 때 공개된『論十大關係』라는重要な文書가 있는데 이는 1956年 4月黨政治局(擴大)會議에서討議된 내용을毛가綜合整理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Chung, 1975: Chap. 1).

毛澤東思想을毛澤東個人의哲學이나理論이라고좁게규정할경우이는毛의論文이나그밖의著述物을分析함으로써그內容을밝힐수있겠다. 그러나만약毛思想을보다넓게해석하는경우그것은毛治下의中國共產黨이표방한主義主張을가르킬수도있으며그런의미에서毛思想은毛澤東個人의哲學이나theory과반드시一致하지는않을수있다. 1976年9月毛澤東이死亡한다음中國에서는毛思想의功過에대해격렬한論爭이있었으며그결과1980年6月의黨中央委員會全體會議를거쳐發表된이른바「歷史決議」는毛思想을毛個人의哲學과分離하고있다(人民日報, 1980.7. 2). 이「決議」는毛思想이毛個人이아닌中國共產黨全體의集團의經驗을통해濾過된理論體系라고규정했다. 따라서文化革命이나大躍進運動과같은激動期에서저질러졌던一部過誤는毛個人의잘못이며毛思想의그것은아니라고주장되고있다. 다시말해毛思想은비록毛澤東個人의이름이붙여지긴했지만그것은상징적의미에불과하며이미毛個人을超越한하나의集團의抽象名詞라는얘기가된다.

이와같은복잡한方法論上의문제를迂迴하기위해本稿에서는毛思想을毛個人의哲學이라는좁은의미로규정하고그것이마르크스主義와어떻게다른가하는점에論議를制限시킨다.

또한마르크스나毛澤東個人과結付시킬수있는龐大的한理論體系全般에걸친엄격한比較檢討가그理論體系가갖는內的論理의一慣性등의문제로인해不可能하기때문에本稿에서는毛思想中가장두드러지게마르크스의주장과다르며또한毛思想體系에서그核心的內容을構成하고있다고할수있는몇가지문제들만다루기로한다.毛澤東思想研究에있어他의追從을不許하는大家로公認되고있는스튜어드·슈람에의하면毛思想에서가장important한세가지內容은첫째指導者와大衆의문제,둘째勞動者와農民의관계,셋째歷史發展의過程이라고한다(Wilson, 1977: Chap. 2).指導者와大衆의문제는共產革命의過程에서前衛政黨의役割또는革命의必然性에관한論爭과直結되어있으며,勞動者와農民의관계에관한둘째문제는革命의主導階層이누구냐에관한論爭으로압축될수있다.셋째의

歷史發展의 過程에 대한 문제는 共產主義社會가 歷史發展의 最終的 段階인가 아닌가, 그리고 共產社會에 이르기까지의 歷史發展의 諸段階間의 關係에 관한 論爭으로서 트로츠키와 毛澤東이 各己 다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永久革命論」 또는 「繼續革命論」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革命家는 아니었다. 그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기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產業革命이 招來한 資本主義社會가 갖는 諸問題들을 分析함으로써 共產主義社會로 이르는 歷史發展의 必然性을豫言한 理論家에 불과했다. 유럽이라는 地域적으로 제한된 범주에서, 그리고 產業革命이라는 初期 資本主義가 겪고 있던 경제사회적 문제에서 資本主義 全般을 理論화했다는 점에서 時期의으로 역시 制限된 범위에서, 마르크스는 歷史發展의 一般 法則을 나름대로 理論화했으며 여기에 헤겔의 歷史哲學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아무도 否認하기 어렵다. 마르크스는 資本主義가 안고 있는 內的 矛盾 때문에 成熟한 資本主義社會가 必然的으로 붕괴되고 共產主義社會가 到來한다고 結論지었을 뿐 실제 共產主義社會가 갖는 資本主義社會 이상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論理의 포로였고 자신이 살고 있던 地域과 時期의 制限性을 超克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르크스 이후의 歷史發展이 마르크스의 誤謬를 現實로 立證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르크스가豫言했던 共產革命은 資本主義가 成熟한 先進 欧美에서 發生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封建社會에서 初期資本主義社會에로의 移行段階에 있던 後進國 러시아와 中國에서 發生했기 때문이다. 資本主義가 갖고 있는 自己修正의 能力を 過小評價했던 것이 마르크스의 誤謬이었고 歷史發展의 動態的 側面을 看過했던 것도 그의 短見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르크스에 비해 毛澤東은 革命家였다. 마르크스의 理論體系에 부딪치기 전에 中國의 現實이 먼저 毛를 直面했었다. 1920年을 前後해서 毛는 이미 共產主義 思想에 心醉하였고 1936年부터는 나름대로의 共產主義理論을 發表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中國의 現實을 바탕으로 해서 革命을 追求한 行動家였다. 理論家 마르크스가 미리豫見하지 못했던 온갖 現實問題를 毛는 몸으로 맞부딪쳐야 했고 그리는 過程에서 나름대로의 理論을 體系化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異質的 土壤에서 體系化된 理論體系인 마르크스主義를 中國의 現實에 適應시키려는 몸부림이 바로 毛思想이라고 할 수 있으며 理論과 現實의 葛藤

과 調和라는 입장에서 本稿는 마르크스主義와 毛思想을 比較하려는 것이다.

2. 黨과 大衆의 關係

革命家로서 毛가 당면한 現實문제 중의 하나는 黨과 大衆 또는 組織과 群衆과의 관계였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의하면 共產革命은 成熟한 資本主義가 本然的으로 內包하고 있는 矛盾에 의해 自然發生的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었고 그러한 革命은 반드시 黨에 의해 組織되고 指導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實際 共產革命은 封建主義段階에서 初期資本主義로 移行過程에 있던 後進社會에서 發生했고, 그것은 강력한 前衛政黨에 의해 統制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엄연한 現實이었다.

이러한 現實문제에 제일 먼저 봉착한 것이 레닌이었다. 이 문제를 理論的으로 해결하기 위해 레닌은 封建社會에서 발생한 共產革命은 먼저 부르조아 民主段階를 거쳐 社會主義段階로 移行하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共產主義段階에 突入한다고 주장했다(Lenin, 1967: 263-361). 共產革命을 향한 첫 段階인 부르조아 民主革命에서는 大衆들이 共產革命意識에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革命意識에 투철한 엘리트의 集團인 前衛政黨이 大衆들을 教育하고 共產革命에로의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종의 過渡期的性格을 지닌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時期에서는 舊時代의 支配階層을 포함한 革命에 非友好的인 人士들이 계속 존재하므로 이들에 대한 獨裁를 위해 서라도 강력한 黨組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大衆은 黨에게 무조건 服從해야 한다는 것이 레닌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黨의 獨裁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黨은 革命意識이 투철한 엘리트의 集團이기 때문에 歷史意識이 優越하고 보다 敏智로운 階層이며 따라서 大衆의 절대 복종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黨의 獨裁는 革命을 組織化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뿐 아니라 黨의構成員이 지닌 本然의 資質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Lenin, 1967: 263-361).

물론 레닌이 前衛政黨의 獨裁라는 입장에서 黨과 大衆과의 관계를 定立한 것이 아무런 內的 葛藤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모리스·マイ즈너의 주장을 빌면 레닌은 러시아적 傳統과 現實 사이에서 심한 內的 葛藤을 겪었으며 마침내는 前者를 버리고 後者를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Meisner, 1971: 2-

36). 나로드닉 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말 러시아에서는 反知性人的 大衆主義(populism)思想이 상당히 風靡했으며, 그것은 주로 農民大衆을 의미했지만, 레닌 역시 이러한 러시아적 傳統을 스스로 저버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Ionescu and Gellner, 1919:62-96). 나로드닉 운동(narodnichestvo)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大衆的 敘智를 少數의 그것에 우선시키며 특히 產業社會의 主役인 勞動者階層보다 封建社會의 核心인 農民階層의 때문지 않은 純粹性과 道德性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黨과 大衆과의 관계에 관한 레닌의 黨獨裁立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마르크스主義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盲目에 가까운 確信에도 不拘하고 유럽의 產業化된 都市를 美化했으며 그러기 때문에 결국 黨과 大衆과의 관계에서도 러시아적 傳統을 버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Wilson, 1977:15-20, 26-27).

毛澤東의 黨과 大衆關係에 대한 입장이 레닌의 그것과 完全히 다르다고들 흔히 주장되어 왔다. 레닌이 黨의 命令과 指導에 大衆이 절대 복종할 것을 강요한 데 비해 毛는 革命엘리트와 그들의 集團的 表象으로서의 黨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大衆의 敘智에 따를 것을 주장했다. 레닌이 黨의 誤謬不可說을 내세움으로써 黨의 決定이 神聖不可侵의 性格을 갖고 있다고 力說한 데 비해 毛는 黨의 決定이 언제나 誤謬없는 것일 수는 없고 오히려 大衆의 集團的 意思에 黨의 決定이 附合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黨決定의 合法性이 좌우된다고 주장했다(Meisner, 1971: 2-36). 이러한 毛의 입장은 60年代 後半의 文化革命時 특히 잘 나타났었다.

文化革命은 기본적으로 49年 政府樹立後 龙大해진 黨官僚組織과 이를 支配하고 있는 일부 反毛的 指導者들에 대한 攻擊으로서의 性格이 강했다. 大躍進運動의 失敗와 함께 毛의 政策路線에 대한 批判이 거세게 일어났고 그 결과 60年代 初에는 劉少奇, 鄧小平, 李先念 등이 이끄는 이른바 實務中心의 指導者들이 黨組織을 장악했었다. 毛는 자신의 말을 빌면 黨政의 第一線에서 물러나 보다 哲學的이고 原則的 문제만을 專念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毛의 입장에서 보면 黨이 革命과 歷史의 使命意識을 忘却하고 엘리트의 既存利益을 옹호하는 權力集團으로 轉落한 것이다. 蘇聯이나 東歐共產國家들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黨의 變質이 일종의 不可抗力의 革命의 世俗化 現象이었지만 毛에게 있어서는 原則的 의미에서나 權力鬭爭의 입장에서

나 모두 용서할 수 없는 事態發展이었다(Ahn, 1976).

文化革命期間 中中共에서 黨은 일종의 反革命的 組織의 代名詞처럼 받아들여졌고 革命後期에 발생하는 모든 世俗的 문제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黨中央委員會나 政治局에 대신하여 文化革命小組라는 非正常的 機構가 모든 重要한 결정을 내렸고 지방에서도 黨組織의 正常的 機能이 마비된 채 三結合이라는 이름을 빌어 나이 어린 紅衛兵들이 主導權을 잡았다. 黨에 反對하는 造反이 毛思想의 이름으로 正當化되었고 심지어는 일체의 黨organization을 없애고 그대신 파리콤룬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었다(Wilson, 1977; Chap. 2). 黨이 大衆, 다시 말해 毛思想에 違背되는 방향으로 轉落하고 變質했다는 게 이러한 前無後無한 狂亂에 가까운 소용돌이의 表面上 理由였다.

그러나 文化革命은 中共의 歷史에서 지극히 非正常的 時機에 不過할 뿐이며 그러한 時機에서 表出되었던 毛의 주장을 마치 毛思想의 全部인양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분명 毛思想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實際로 毛는 黨과 大衆과의 관계에 있어 레닌에 가까운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固守했다. 1942年 2月 黨이 展開한 整風運動에 즈음하여 毛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一部同志들은 黨의 民主集中制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黨이 民主主義를 必要로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集中制를 必要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忘却하고 있다”(Schram, 1969: 313). 그리고 毛는 民主集中制가 少數가 多數에 服從하고 下級組織이 上級組織에 服從하고一部가 全體에 服從하고 全體 黨員이 黨中央委員會에 服從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毛가 말하는 服從이란 盲目的 服從은 아니었다. 적어도 레닌이 주장했던 黨의 命令에 대한 無條件的 服從이 毛가 생각하는 黨과 大衆의 關係는 아니었다. 1943年 6月에 發表된 毛의 유명한 演說「群衆路線」에서 毛는 黨과 大衆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모든 정확한 指導는 群衆에서부터 시작해서 群衆으로 돌아가야 한다. 群衆의 散漫하고 體系的이 아닌 意見들을 收集하고 分析하여 體系化한 다음 이들 意見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 政策들을 群衆들에게 宣傳하고 說明하여 그들이 政策들을 자신들의 意見인양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Schram, 1969:316-317). 다시 말해 黨이決定한 政策은 群衆들의 見解에 바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群衆들에게

黨의 政策에 대한 無條件의이나 盲目的인 服從을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그들이 黨의 政策을 이해하고 찬성하여 마치 그 政策들이 자신들의 그것과도 같은 것으로 자진하여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年後인 1962年에도 毛의 黨과 大衆에 관한 見解에는 균원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때 毛는 이미 實務派에 밀려 黨의 第一線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었으며 文化革命의 前奏曲인 四清運動이 서서히 本格化되고 있었다. 그해 이른바 黨中央工作(擴大) 會議에 모인 7천명의 幹部들 앞에서 毛는 오래간만에 다시 民主集中制에 관한 자신의 見解를 아주 자세하게 說明했다. “民主主義 없이 集中制를 올바르게 실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기 다르며 그들의 생각이 통일되지 못하면 集中制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集中制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올바른 생각의 集中을 의미한다. 올바른 생각의 集中이 있어야만 이해가 통일되고 政策과 計劃와 命令 그리고 行動이 통일될 수 있다. 이것이 集中的 統一이다…만약 民主主義가 없으면 경험들을 정확하게 종합할 수 없으며 群衆들로부터 정확한 意見이 表出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路線이나 일반적이건 구체적이건 올바른 政策들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Schram, 1974:163-164). 이 연설에서 毛는 集中制보다 民主主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大躍進의 失敗에 책임지고 權力의 第一線에서 밀려난 후 黨中央에로의 復歸를 꿈꾸고 있던 毛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民主의 重要性을 강조한 毛는 黨의 役割이 群衆에 의해 代行될 수 있는 不必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연설에서 毛는 黨과 大衆의 관계를 生産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群衆의 見解를 原料에 비유하고 黨은 그 原料를 받아서 製品을 만들어 내는 工場에 비유하면서 原料가 없이는 工場이 돌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工場이 없이는 原料가 製品化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原料에 해당하는 群衆의 意思가 궁극적으로 政策으로 具體化되고 實際로 實踐에 옮겨지는 것이 바로 黨中央에 의한 것임을 毛는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文化革命의 漢中에서 1967年 2月 張春橋와 王洪文과 만난 毛는, 上海에서 人民委員會를 폐지하고 콤뮨을 설치했으며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類似한 機構를 설치하려는 이른바 四人幫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反對意思를 분명히 했다. 四人幫의 생각이 极端적인 無政府主義이며 反動的이라고 지적한 毛는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核心이 존재해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관계없다. 그것을 共產黨이라고 불리도 좋고 社會民主黨이라고 불리도 좋으며 國民黨이라고 불리도 좋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黨은 存在해야 하며 콤뮨이 설치된다 해도 黨은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 콤뮨이 黨을 대身할 수는 없다”(毛澤東, 1969: 670-671).

물론 黨과 大衆에 관한 毛의 見解가 레닌의 그것과一致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毛가 비록 黨의 主導的 役割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群衆이 黨에 服從할 것을 주장했지만 毛의 경우 群衆의 服從이 레닌보다 훨씬 自發的이어야 했으며 黨이 群衆으로부터 배우고 群衆의 集團意思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었다. 특히 49年 以後 權力의 世俗化와 함께 黨組織이 硬直되면 될수록 群衆과 黨의 關係는 絶對服從에서 自發的 受容의 방향으로 그 強度가 변해 갔다고 볼 수 있다. 毛가 黨과 群衆의 關係에 관한 한 마르크스보다 레닌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레닌의 입장에 充實하려는 이데올로기적 動機와 中國의 現實에 對處해야 한다는 客觀的 要請 사이에서 무수한 心的 葛藤을 겪으면서도 毛는 비록 部分的 修正은 있었으나 끝까지 근본적인 의미에서 레닌의 입장을 완전히 離脫하지는 않았다. 黨과 群衆의 關係에서 毛가 레닌을 部分 修正한 또 하나의 예는 群衆이 누구냐 하는 문제였다. 레닌에 있어서 群衆이란 產業社會의 主役으로서의 勞動者階級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지만 毛의 경우에는 적어도 農民階級이 群衆의 主要한 構成員이었다.

3. 農民과 勞動者의 關係

마르크스에게는 產業勞動者階級이 歷史發展의 前衛階級이었다. 그는 社會分業을 生產關係라는 입장에서 규정했으며, 生產關係는 다시 끊임없는 生產力의 發展과의 有機的 關係에서 分析했으며, 이러한 分析에 입각해서 產業勞動者들이 歷史의 主役이라는 결론을 그가 내렸던 것이다. 勞動者階級이 資本主義社會에서 가장 착취받고 억압받는 階級이었던 것처럼 農民階層은 封建社會의 主力部隊였다. 歷史發展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특수한 生產樣式과 그에 따른 生產關係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그 단계에서 生產의 主任務를 수행하는 階層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資本主義體制下에서 富의 創出의 主役인 產業勞動者들이 야말로 資本主義의 生產關係가

갖는 矛盾에 의해 가장 큰 희생을 강요당하는 階層이며 그래서 產業勞動者 들이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에로의 歷史的 段階移行에서 가장 중요한 役割 을 擔當한다는 것이다.

레닌도 마르크스적 시각에서 階級을 分類했다. 러시아적 現實을 고려하여 農民에게도 革命過程에서 役割을 부여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產業勞動者 階級에 비해 附隨的이며 從屬的 役割에 지나지 않았다. 實際 레닌은 農民을 하나의 獨自的 階級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革命意識에 불타는 勞動者階級 에 의해 引導되는 隸下部隊에 지나지 않았다.

勞動者와 農民의 關係에 있어서도 中國의 現實과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 的 葛藤 속에서妥協點을 찾아내고 서로의 相馳點을 調和시키려는 노력을 毛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다. 全體人口의 20퍼센트 이상을 占하고 있는 農民 을 外面한 채 마르크스나 레닌의 주장대로 中國共產主義革命을 极히 소수에 불과한 產業勞動者들에 依存한다는 것은 지나친 非現實的 處事였음을 누구보다도 毛가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上海等地에서 毛는 產業化 初期段階의 都市가 지니는 온갖 社會經濟의 문제점들을 몸소 목격했고 그래서 레닌이 유럽의 都市에서 人類文化의 精髓를 발견했던 것과는 대조적 으로 都市를 資本主義의 邪惡의 溫床으로 그는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毛는 1926年 9月의 「革命과 農民運動」이라는 論文에서 中國에서의 革命이 農民에 依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Wilson, 1977:40). 그는 中國과 같이 經濟的으로 落後된 지역에서는 革命의 가장 큰 적이 農村의 封建地主 階級이라고 지적하고, 農村에 이들의 權力의 뿌리가 있으며 따라서 農村에서 이들의 權力基盤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國에서의 革命은 都市의 자본주의 계급보다도 農村의 封建地主階級을 主된 對象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農村이 革命鬪爭의 主된 무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毛는 農民이 勞動者보다 더 일관성있고 철저한 革命家들이라고 역설하고 이러한 農民들에 비해 勞動者들은 「勞動組合意識」 밖에 없는 단순한 改革主義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Wilson, 1977).

다음 해인 1927年 3月에 쓰여진 「湖南의 農民運動에 관한 調查報告」에서 이러한 毛의 주장은 더욱 具體化된다(毛澤東, 1969: 23-44). 陳獨秀一派의 「右翼機會主義者」들이 전개한 「農民의 革命鬪爭에 대한 批判」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32일 동안 湖南一帶를 現地踏査한 毛가 그곳에서 직접 보고 듣

은 것을 토대로 썼다는 이 論文은 毛의 農村中心的 哲學을 강렬하게反映하고 있다. 湖南一帶에서 農民들의 不滿이 심각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毛는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 農民들이 中國各地의 農林에서 怒濤같이蜂起할 것이라고豫言했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것은 毛가 勞動者階級이 革命의 主體가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레닌의 理論을正面으로 否認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1926年の「革命과 農民運動」에서 勞動者들이 組合意識에 젖어 있는 改革主義者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극단의 表現은 그 이후의 毛의 어떠한 論文이나 演說에서도 다시 찾아볼 수는 없다. 오히려 1931年 8月 26일에 採擇된 黨의 한 決議文은 革命의 成功을 위해서는 中國共產黨이 프롤레타리아政黨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黨의 政策이 都市center으로 짜여져야 할뿐 아니라 黨員의 構成이 勞動者階級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黨의 모든指導的 position에 勞動者出身의 黨員들이 들어앉아야 한다고 선언했다(d'Encausse and Schram, 1969: 246). 물론 이 決議文이 毛의 意思를 그대로反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黨의 主導權은 上海에 자리잡고 있는 都市派가 장악하고 있었고 모스크바의 支持와 指令을 받고 있던 이들 上海派는 井崗山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毛의 農村派와 심각한 헤게모니 爭奪戰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毛가 적어도 公式的으로 이 문제에 대해 反對意思를表明하지 않았다는 점을 注目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당시의 中國의 現實이 古典的 마르크스·레닌理論의 援用을 受容하지 않는다고 毛가 確信했을지 모르나 동시에 그것은 中國의 現實과 理論의 乖離일 뿐 마르크스·레닌의 理論 자체를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고 毛는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大長征이 끝나고 延安時代가 開幕되는 1936年 以前까지는 毛가 產業勞動者들이 中國革命의 主導勢力이라고 인정했으나 그 以後에는 같은 주장을 했지만 產業勞動者라는 表現 자체가 마르크스나 레닌이 주장했던 具體的 實體로서의 勞動階級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의 抽象名詞로 變質했다는 가정도 재미있는 것이다(Wilson, 1977:24).*

延安에 도착한 毛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資本家의 착취에 신음하는 革命意識에 가득찬 勞動者들의 集團이 아니라 가난과 추위에 지칠대로 지친 다양한 배경을 가진 烏合之卒의 무리였다. 이들을 中心으로 革命課業을 추

* Benjamin Schwartz 같은 學者가 그 代表的 例이다.

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毛가 처한 당시의 現實이었고 이러한 現實과妥協의 產物로 등장한 것이 自己犠牲과 全體利益의 集團精神에 불타는 사람 이면 누구나 出身性分과 社會的 位置에 無關하게 「勞動者」가 될 수 있다는 毛의 非마르크스的 哲學이었다는 것이다.

井崗山과 延安에서의 現實이 毛로 하여금 農村으로부터의 革命을 강조하게 했다면 49年 政權樹立 以後의 現實에서 毛는 社會主義建設의 무대가 都市이어야 한다고 깨달았다. 1949年 3月 政府樹立을 눈앞에 두고 毛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927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工作은 農村中心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農村에서 劢力を 규합하고 農村으로부터 都市를 포위하여 최종적으로 都市를 占領하는 戰略을 우리는 실천에 옮겨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農村中心의 戰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都市에서 農村을 겨냥하며 都市가 農村을 이끌어 나가는 工作方法을 이제부터 채택해야 한다. 黨의 工作의 中心이 이제 農村에서 都市로 옮겨 겠다”(毛澤東, 1961: 363). 다시 말해 革命期가 지나 社會主義建設期에 突入한 1949年 以後에는 中國의 現實과 마르크스·레닌的 理論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며 經濟建設 등 政權樹立 이후 中共이 당면한 문제에 農民보다 勞動者階級의 役割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毛가 느꼈는지 모른다. 어쨌든 49年 以後 毛는 農民이 勞動者와 對等한, 그 자체로서 하나의 獨立된 階級을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나 레닌을 修正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나 勞動者階級이 社會主義建設에 있어 가장 重要的 主導勢力이라는 점을 否認하지 않았다.* 例를 들면 1959年 3月 大躍進運動의 涡中에서 第2次 成都會議가 개최되었을 때 毛는 中國이 당면하고 있는 社會主義建設의 過渡期的 時期에서는 農民들이 部分的이나마 二重的 性格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農民들이 封建社會의 落後된 意識構造와 社會主義의 先進意識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產業勞動者階級에 비해 劣等하며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力說했다. 毛는 勞動者와 農民이 兄弟의 關係에 있으며 勞動者가 형님이라고 덧붙였다(毛澤東, 1967: 12, 17, 49). 그러나 毛는 그의 全生涯를 통해 끝까지 勞動者階級이 레닌이나 스탈린의 주장대로 農民보다 더 나은 組織力を 갖고 있다거나 그들의 革命意識이 農民의 그것보다

* 毛가 農民을 勞動者와 같은 하나의 獨自的 階級으로 内세운 것은 1958년 第1次 成都會議에서였다(Schram, 1974; 112-113).

優越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단지 共同所有에서 全人民所有制로의 移行이 完成되지 않은 中國의 現實때문에 農民이 勞動者의 指導的 役割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現實때문에 不可避한 일종의 過渡期的 現象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農民이나 勞動者階級의 本然的 特性은 아니라는 것이다.

4. 歷史發展의 段階

毛思想에서 마르크스主義의 中國的 變容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毛의 歷史發展觀이었다. 좀 單純化시켜 보면 마르크스의 歷史發展은 共產主義社會의 登場과 함께 停止하는 것이었다. 生產力의 發展과 生產關係 사이에 아무런 矛盾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共產社會가 到來하면 歷史發展의 原動力인 矛盾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歷史가 發展할 수 없는 段階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歷史發展을 唯物論的 視角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저지른, 자신의 論理展開에 스스로가 묶여 버린 극히 非現實的 結論이기도 했다. 비록 資本主義에서 共產主義로 移行해 가는 過程에서 레닌과 스탈린이 부르조아 民主革命의 段階와 社會主義(集團所有制度)段階를 삽입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은 歷史移行論에서 古典的 마르크스理論을 그대로 受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毛의 입장은 이와 상당히 달랐다. 毛는 근본적으로 革命이전 社會主義建設이전 간에 重要한 것은 經濟나 技術이 아니라 政治라고 이해했다. 「政治掛師」(Politics in Command)라는 슬로건에서 分明한 것처럼 毛思想의 真髓는 政治優先에 있었다.

毛에 있어서 政治란 매우 複合的인 의미를 갖고 있다. 마르크스나 레닌이 모두 階級鬪爭을 강조했으나 그러한 階級鬪爭의 무대는 經濟的 領域이었으며 이른바 下部構造이었다. 歷史의 原動力으로서의 階級鬪爭이 生產力과 生產構造 사이에 존재하는 矛盾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唯物論的 史觀 때문에 政治는 經濟의 附隨物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政治가 重要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獨自性이 인정되지 않은 채 그 당시의 經濟關係에 의해 그 태두리가 결정되어야 했다. 人間의 意識이나 思考樣式도 生產關係의 特徵을 反映하는 것이며 따라서 生產關係나 生產手段의 所有制度가 바뀜에 따라 마르크스가 上

部構造라 불렸던 一切의 範疇도 그에 맞게 變化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毛는 政治가 반드시 經濟와 一致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비록 生產手段의 所有制가 個人에서 共同이나 集團所有制로 바뀌었다고 해도 個人的 意識狀態는 그에 상응해서 변하지 않고 過去의 殘滓를 지속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論理를 뒤집어 보면 비록 經濟的 技術的 與件이 구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群衆의 意識은 客觀的 與件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성립한다. 1955年 中共에서는 農村의 生產合作社 構成문제를 둘러싸고 黨內에서 심각한 論爭이 있었다. 40年代 말과 50年代 初에 이미 中共에서는 土地改革이 完成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53年에는 農家를 10~30戶씩 하나의 生產單位로 묶는 生產小隊結成이 끝나 있었다. 문제는 이들 生產小隊를 다시 몇 개씩 하나로 묶어 보다 큰 作業單位(農業合作社)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一部 實務陣들이 經濟技術的 客觀的 條件이 成熟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反對한 데 비해 毛는 客觀的 條件보다 農民의 意識狀態가 더 重要하다고 주장, 合作社의 結成을 促求한 데 있었다. 實務陣들은 農業生產의 單位가 보다 擴大되기 위해서는 트랙터와 같은 機械化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 合作社 結成이 機械化가 이루어진 다음에 實시되어야 한다고 力說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毛는, 첫째 機械化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時日이 요구되며 그때까지 合作社 結成을 延期할 수는 없다는 점과,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客觀的 與件이 마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農民들의 集團志向의 意識狀態가 보다 큰 單位의 共同作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高次元의 경지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精神力으로 物質的 基盤을 보다 높은 段階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 다분히 唯心論的 主張이었다(Bernstein, 1967:1-47). 결국 毛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農業合作社가 結成되었고 그結果 中共에서는 1930年代 後半期의 集團化 때보다 훨씬 成功的인 農業集團化가 이루어졌었던 것이다.

3년후에 전개된 大躍進運動 때에도 毛는 같은 論理를 내세웠다. 人民公社의 創設이 客觀的 與件에 비추어 보면 無理한 일일지 모르나 人間的 要素—다시 말해 8억의 中共大衆들이 共產主義社會建設의 정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 條件의 未熟을 능히 補充하고 남음이 있다는 게 毛의 論旨였다. 毛는 經濟發展, 특히 產業生產의 發展이 社會主義建設에 必要한 條件이지만 그것 자체로서는 극히 不充分한 條件이라고 믿었다. 스탈린의 技術과 管理

能力偏重을 비판하면서 大躍進이 시작되기 직전인 1958年 5月 毛는 이렇게 말했다. “스탈린의 슬로건은 緯證法的 理論으로서는 不充分하다. 만약(스탈린의 주장대로) 技術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政治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幹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大衆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共產主義는 소비에트와 電力化를 합친 것이라는 헤닌의 말이 옳다. 소비에트는 政治을 뜻하고 電力化는 技術을 의미한다. 政治와 技術의 結合만이 共產主義에 이르는 지름길이다”(毛澤東, 1969: 216). 毛가 技術엘리트의 必要性을 無視한 것이 아니라 群衆의 政治的 情熱을 動員하는 것이 더욱 重要한 일이라는 것이다. 大躍進運動이 한창일 무렵인 1958年末과 1959年初 毛는 스탈린의 著書인『蘇聯社會主義의 經濟的 問題들』을 이렇게 批評했다.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탈린은 上部構造에 대해 한 마디의 言及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考慮도 하지 않았다. 그는 物件만 보았지 人間은 보지 못하고 있다. 蘇聯사람들은 生產關係에만 關心을 갖고 있을 뿐 上部構造나 政治, 그리고 人間의 役割에 關해서는 전혀 關心이 없다. 共產主義運動이 없이는 共產主義에 이르릴 수 없는 것이다”(毛澤東, 1967: 156-157).

그러나 人間과 政治을 강조하는 毛의 唯心史觀은 經濟決定論의 立場을 批評하는 단계를 넘어 歷史發展의 逆行까지를 是認하게 된다. 헤겔에 있어서처럼 마르크스主義가 認識하는 歷史發展의 기본 動因은 否定의 否定이다. 歷史의 前進을 妨害하는 否定의 範疇는 그것을 다시 否定하는 否定의 否定이 緯證法的으로 創出됨으로써 否定되어지며 그래서 歷史의 수레바퀴는 共產主義(헤겔의 경우는 絶對精神의 具現인 獨逸國家)라는 終着驛을 향해 굴러가게 된다. 그러나 毛는 否定의 否定을 다시 否定함으로써 歷史가 반드시 보다 나은 未來를 향해 前進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보다 못한 方向으로 變質的 移行을 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大躍進運動이 失敗로 끝나고 그 때문에 毛의 理想主義의 執念이 現實의 어두운 벽에 부딪쳤던 1960年代初 毛는 共產主義가 歷史의 終着驛이 아니며 歷史가 다시 逆行할 수 있다는 실로 마르크스主義를 송두리째 否定하는 얘기를 했다. 그는 社會主義段階가 지나 共產主義段階가 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共產主義段階에서는 아무런 變化가 없겠느냐」라고 스스로 묻고 있다(毛澤東, 1967: 186-187). 그는 몇 년 후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莊子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莊子는 그의 妻가 죽자 세수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옛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생겨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음은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축하를 해야 할 일이다. 社會主義 역시 없어질 것이다”(Schram, 1974: 227). 그리고 그는 共產主義社會도 일단成立하면 언젠가는 또 다른 社會로 變化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社會로 바뀔지는 모르나 바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물이 죽으며 태어나고 다시 죽는 陰陽의 法則처럼 共產主義도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는 陰陽의 調和를 벗어날 수 없는 可變的인 것이기 때문에이라고 한다(Schram, 1974: 228). 共產主義社會에서도 人間의 意識은 客觀的 變化에 順應하지 못하고 落後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언젠가는 다른 그 무엇으로 바뀌고 만다는 주장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毛思想이 마르크스主義의 原型에 道家的 無爲思想이 接本된, 西洋哲學과 中國的 傳統思想이 非論理的으로 融合된 좋은例를 볼 수 있다. 毛思想의 가장 특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不斷革命論도 결국 따지고 보면 下部構造와 上부構造는 반드시 一致하지만은 않는 서로 獨自的 領域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共產主義社會에서도 共產主義를 否定하려는 要素들에 대한 不斷한 革命的 止揚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아마도 毛는 죽을 때까지 不斷한 否定의 否定을 위한 止揚이 결국 成功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不斷革命은 文字 그대로 不斷한 것이라는 歷史의 無定型論을 믿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다. 바로 여기에서 마르크스主義의 中國的 受容 또는 보다 정확히 말해 毛澤東의 變容이 그 真面目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5. 結 語

毛澤東思想이 마르크스主義의 中國的 受容이라는 점에 대해 異意을 제기 할 수는 없다. 毛가 말했듯이 “汽車나 비행기나 大砲같은 것은 地域的 變容이 必要없는 것인지 모르나 政治나 技術은 國家와 社會의 土壤에 따라 제각기 다른 스타일을 가져야 한다”(毛澤東, 1967: 48). 문제는 地域的 文化的 特殊性에 의해 마르크스主義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中國的 土壤에 알맞게 變容되었느냐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 毛 자신은 中·蘇紛爭이 高潮되던 1960年末 中國의 共產主義가 異端이라는 蘇聯의 非難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나 다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나무가 제각기 다른 잎새와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가지나 잎새는 달라져야 한다. 각 국가의 實情이 다르기 때문이다(毛澤東, 1967: 262).

그러나 지금까지의 論證에서 毛思想은 단순한 잎새나 가지의 變容이라는 次元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라는 나무 자체마저 다르게 移植했을 가능성이 排除될 수 없다. 毛澤東의 辩證法을 援用하면 잎새나 가지의 變容이 나무 자체의 變容을 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잎새나 가지가 다른 것은 土壤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나무 역시 土壤을 떠나 홀로 存在할 수는 없는 것이 分明한 것이다.

〈參 考 文 獻〉

毛澤東

- 1964 『毛澤東選集』, 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1 『毛澤東選集』, 第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1967 『毛澤東思想萬歲』, 北京.
 1969 『毛澤東思想萬歲』, 北京.
 人民日報
 1980 『人民日報』1980. 7. 2.

Ahn, Byung-joon

- 1976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Bernstein, Thomas P.

- 1967 "Leadership and Mass Mobilization in the Soviet and Chinese Collectivizations of 1929~30 and 1955~56: A Comparison," *The China Quarterly*(July-September): 1-47.

Chung, Chong Wook

- 1975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Industrial Management in China*,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d'Encausse, H. Carrère and Stuart Schram

- 1969 *Marxism and Asia*, London, Allen Lane, The Penguin Press
 Ionescu, Ghita and Ernest Gellner (eds.)

- 1969 *Populism: Its Meanings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London, Weidenfeld

- and Nicolson.
- Lenin, Vladimir
1967 "The State and Revolution", in *Lenin; Selected Works*, Vol. II,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263-361.
- Meisner, Maurice
1971 "Leninism and Maoism; Some Populist Perspectives and Marxism-Lenism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No. 45, (January-March): 2-36.
- Schram, Stuart
1969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Praeger.
1974 *Chairman Mao Talks to the People*, New York, Pantheon Books.
- Wilson, Dick, (ed.)
1977 *Mao Tse-tung in the Scales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